

Thailand Easter Retreat Report by Banseok Lee

We are grateful to God for abundantly blessing the Thailand UBF summer retreat from April 6th to 8th.

The title of this retreat was “Jesus Came to Call Sinners” (Mark 2:17). God raised four servants of the Word. The opening message was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Mark 1:15), delivered by Shepherd Top. In the first main lecture, Shepherd Tam Paul delivered the message “Jesus Came to Call Sinners” (Mark 2:1-17) with authority and grace. He shared his powerful transformation from a serious sinner, not free from all sins except drugs, to a shepherd living a completely transformed life by the grace of Jesus, who did not condemn him but forgave his sins. The evening message was graciously delivered by Dr. Mongkol with the title “God's Word Sweeter Than Honey” (Psalm 119:103). Based on these words, we are encouraged to long for God's word, which is sweeter than honey, and to read it every day. The second main lecture was delivered graciously and powerfully by Shepherd Luka based on the words, “Preach the gospel to all people” (Mark 16:15).

In addition, three life testimonial speakers shared gracious life testimonies, and among them, two people and two second-generation shepherds volunteered to be baptized, resulting in a total of four people being baptized.

We are thankful to God for helping us escape from the city center in the hot weather and have a gracious Heavenly Word Banquet at Bangsaen Beach. Thirty people attended this retreat, and we prayed that 40 people would attend next year. May the Lord raise disciples from Chulalongkorn University, Kasetsart University, and Mahidol University through one-on-one Bible studies. We thank God for abundantly blessing the 2024 summer retreat.

지난 4 월 6 일부터 8 일까지 2 박 3 일동안의 태국 UBF 여름 수양회를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2:17)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 명의 말씀의 종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개회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5) 말씀을 Top 목자가 잘 전했습니다. 주제강의 1 강은 Tam Paul 목자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2:1-17) 제목을 권세있고 은혜롭게 잘 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마약류를 제외한 모든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큰 죄인이었지만 정죄치 않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녁 메시지는 Dr.Mongkol 이 시편 119 편 103 절,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읽도록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제 2 강은 Luka 목자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 장 15 절) 말씀에 기초해서 은혜롭고 권세있게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3 명의 라이프 소감강사들이 은혜로운 인생소감을 발표했고 이 중에 2 명과 목자 2 세 2 명이 자원해서 세례를 받고자 해서 총 4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도심을 벗어나 방센 바닷가에서 은혜로운 천국 말씀잔치를 갖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30 명이 참석했는데, 내년에는 40 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Chulalongkorn Univ. Kasetsart Univ. 그리고 Mahidol Univ. 가운데 일대일을 통한 제자양성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2024 년 여름 수양회를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